

##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 서울서 개최

- 출범 15주년을 맞아 한국과 독일 간 합의로 위원회 명칭 변경 -
- “통합의 경험과 평화공존의 길” 주제 아래 양국 자문위원 한자리 -

【관련 국정과제】 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동독지역특임관실)는 지난 15년간 한국과 독일 양국의 고위급 정례협의체로 운영해 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의 명칭을 「한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이번 명칭 변경은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축적됐고,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 의제 확장 등 자문위원회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는 데에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됐다.
  - 양국은 향후 개편된 명칭 아래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관리와 공존 방안 등으로 주제를 넓혀 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일 의제뿐만 아니라 동서독 긴장완화 프로세스, 유럽연합의 다자간 통합 사례, 평화담론, 사회 갈등의 관리를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 등 미래사회 설계에 관한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명칭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는 6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서울에서 “통합의 경험과 평화공존의 길”이라는 부제로 개최된다.
  -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은 공동위원장이인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 독일측은 공동위원장이인 엘리자베트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국무장관(차관급, 동독지역특임관 겸직)을 비롯해 독일 정부 관계자와 자문위원, 전문가 등 18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주한 독일대사, 주한 독일 문화원과 독일정치재단 관계자 등도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이다.

- 회의 첫날인 6월 9일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양국의 대응 전략과 협력 증진, 한반도 평화공존 패러다임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이어서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대한 경제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정책적 조건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튿날인 6월 10일에는 경제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독일 내부의 논쟁을 짚어보는 한편, 남북 교류협력이 양측 주민들의 민족동질성과 평화 인식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내적 통합의 토대에 대해 토론한다.
  - 또한,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간 역사적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이 성취해 온 민주주의 회복력을 역내 평화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 갖는 함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끝으로 자문위원회 출범 15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의 협력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통일담론을 넘어 평화공존과 통합 과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 주요 참석자 명단

담당 부서	통일정책실 국제협력기획과	책임자	과 장	서영신 (02-2100-2370)
		담당자	사무관	노일준 (02-2100-2372)



**□ 개 요**

- 일시 · 장소 : 2026.6.9.(화) ~ 6.10.(수), 더 플라자 호텔 서울
- 참석자
  - 양국 공동위원장(한국 통일부 차관·독일 연방재무부 국무장관), 양국 자문위원, 전문가, 주한 독일대사 및 독일 정치재단 관계자 등 40여 명
- 주제 : △현 정세 평가 △경제·사회적 통합 △독일통일 및 EU 통합의 역사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한독자문위원회」 15주년 계기 협력사업 평가

**□ 주요 일정**

구분		주요내용
6.9. (화)	오전	개회식 - 환영사(김남중 통일부 차관) - 답 사(엘리자베트 카이저 연방재무부 국무장관 겸 동독지역특임관) - 축 사(게오르그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세션① : 현 정세 및 상황 진단 - (독일) 한국과 독일, 그리고 평화공존의 지정학 - (한국) 최근 국제질서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환경 평가
	오후	세션② : 통일을 위한 경제정책 - (독일) 1990년 이후 구동독지역 경제발전 - (한국) 공존 기반 한반도 경제통합 모델
6.10. (수)	오전	세션③ : 경제통합과 내적통합 - (독일)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의 경제정책 노선에 대한 담론 - (한국) 교류협력이 남북한 주민의 민족동질성과 평화 인식에 미친 영향
	오후	세션④ : 독일 통일과 EU 통합 모델로 본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 (한국)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동북아 평화 회복력 확장 방안 - (독일) 독일 통일이 EU 통합에 미친 영향 - (한국) 평화공존의 제도적 모델
		종합토론 : 한독자문위원회 15주년 계기 협력사업 공동 평가

**《 참고 : 한독자문위원회 개요 》**

- 2010년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MOU에 근거, '11년 독일의 통일·통합 경험 공유 등을 위해 「한독자문위원회」를 발족, 양국을 교차 방문하며 매년 회의 개최
  - \*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
- 양측 차관을 공동위원장, 각각 12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초기 군사·경제·행정 등 거시적 주제에서 미시적·전문적 주제로 심화
  - 한국측 주관 부처는 통일부이며, 독일측 주관 부처는 2013년 연방경제에너지부, 2021년 연방총리실, 2025년 연방재무부 등으로 변화

□ 한국측 주요 참석자

구 분	성 명	주요 직책
위원장	김남중	통일부 차관
자문위원	권만학	경희대 국제학과 명예교수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 명예교수 중앙대 독일유럽센터 소장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前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 전공 교수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관장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초빙 석학교수
	이봉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前 주독일 한국대사관 문화원장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역사문화학부 학장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주필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前 한신대 부총장

## □ 독일측 주요 참석자

구분	성명	주요 직책
위원장	엘리자베트 카이저 <b>Elisabeth KAISER</b>	연방재무부 국무장관 겸 동독지역특임관 연방의회 하원의원
주한독일 대사관	게오르크 슈미트 <b>Georg Wilfried SCHMIDT</b>	주한 독일대사
자문위원 및 발제자	알렉산드라 티체 <b>Alexandra TITZE</b>	연방기록보관소 부소장
	클라우스-디터 슈납아우프 <b>Dr. Klaus-Dieter Ernst SCHNAPAUFF</b>	前 연방내무부 실장 및 통일조약 협상팀장
	마르틴 돌리히 <b>Martin Tobias DULIG</b>	작센주 의원, 독한포럼 의장 前 작센주 경제·노동·교통부 장관 겸 부총리
	닐스 슈비더스키 <b>Niels Jörg SCHWIDERSKI</b>	연방의회 사회주의독재희생자특임관실 비서실장 정치적 박해 희생자 재단 이사회 의장
	한스 요아힘 하커 <b>Hans-Joachim HACKER</b>	前 연방의회 하원의원 前 동독 인민의회 마지막 의원(사회민주당)
	안나 카민스키 <b>Dr. Anna Annette Christina KAMINSKY</b>	연방 동독사회주의독재청산재단 사무총장
	슈테파니 야콥스 <b>Dr. Stephanie Barbara JACOBS</b>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 서적·문자박물관 관장
	게지네 올트만스 <b>Gesine OLTMANN</b>	평화혁명재단 이사
	에릭 발바흐 <b>Dr. Eric Julina BALLBACH</b>	독일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
	미하엘 비르비히 <b>Prof. Dr. Michael WYRWICH</b>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기업가정신·지역개발 교수
	마르쿠스 뵈이크 <b>Dr. Markus BÖICK</b>	영국 케임브리지대 현대 독일사 교수
키란 파텔 <b>Prof. Dr. Kiran Klaus PATEL</b>	루드비히 막시밀리안대 현대사 석좌교수	
연방무역 투자진흥처	일디즈 괴체 <b>Yildiz GÖTZE</b>	연방무역투자진흥처 국제화지원프로그램 국장
연방 재무부 동독지역 특임관실	안야 차호프 <b>Anja ZACHOW HEUCHLING</b>	연방재무부 동독지역특임관실 비서실장
	플로리안 슈팽글러 <b>Florian SPENGLER</b>	연방재무부 동독지역특임관실 과장
	크누드 안드레젠 <b>Dr. Knud ANDRESEN</b>	연방재무부 동독지역특임관실 담당관
	로사 셰러츠 <b>Rosa SCHERERZ</b>	연방재무부 동독지역특임관실 담당관
주한독일 문화원	클레멘스 트레터 <b>Dr. Clements TRETER</b>	주한 독일문화원 원장
주한독일 정치재단	프레데릭 스포어 <b>Frederic Spohr</b>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임성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부대표
	김영수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사무국장
	성다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